◇초조대장경 인쇄본 중 국보 267호로 지정된 <아비달마 식신족론(識身足論)>권 제12

"국내외 흩어진 초조대장경 결집"

고려대장경硏, DB · 영인본 추진

우리 나라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대장경이면서도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초조대장경이 결집된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는 초조대장경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영인본 출판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초조대장경은 고려 현종 2년(1011)부터 선종 4년(1087)에 걸쳐 판각되었다고 전해지는 우리 나라 최초의 대장경으로 고종 19년(1232) 몽골 2차 침입 때 경판은 불타고, 인쇄본만 국내외에 흩어져 전한다. 팔만대장경을 판각하면서 저본이 된 대장경이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의 제작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갈 수 있는 자료로도 평가된다.

고려대장경연구소장 종림 스님은 "초조대장경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대장경이자 세계에서 두번째로 만들어진 한역대장경으로 문화사적 의의가 크다. 그런데도 종합적 연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장경연구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존 초조대장경 인쇄본의 규모는 대략 2800여 권이다. 호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100여 권을 포함해 국내에 300여 권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는 국보와 보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남아 있는 인쇄본의 대부분은 일본에 전한다. 임제종 사찰인 남선사에 1818권이 전하고 있고, 대마도 등지에 600여 권이 전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구소는 현재 전하는 초조대장경의 소재와 목록을 파악하고, 이를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웹사이트에 공개함으로써 초조대장경 관련 연구 활성화와 종합적 보존 · 관리 체계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종림 스님은 "개인 소장가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1818권의 초조대장경을 소장하고 있는 일본 남선사의 대장경 확보가 필수 조건이기에 한일 불교계의 적극적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식학은 대승교학의 정점"

'성유식론' '성유식론 술기' 완역한 이동우 씨

"〈성유식론〉과 〈성유식론 술기〉는 유식학 전공자뿐 아니라 불교학의 기초 자료로서도 중요한 논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원문 번역조차 안 돼 있는 실정입니다."

중관 사상과 함께 인도 중기 대승불교의 두 축을 형성했던 유식 사상의 대표적 논서 〈성유식론(成唯識論)〉과 이에 대한 주석서인 〈성유식론 술기(述記)〉가 한 소장학자에 의해 완역됐다. 〈성유식론〉은 동국역경원에서 지난해 완간한 한글대장경에도 포함돼 있으나 〈성유식론 술기〉에 대한 번역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올 2월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에서 '유식학파의 아뢰야식 종자론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이동우(43 · 사진) 씨는 10년 가까운 노력 끝에 이 두 책의 번역을 최근 마쳤다. 원고지 매수만도 2만 4천여 장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성유식론〉은 유식 사상을 체계화시킨 세친(世親)의 저술 〈유식삼십송(唯識三十頌)〉에 대한 종합적인 주석서다. 〈유식삼십송〉은 10명이 각각 저술한 주석서가 유명한데, 당 나라 현장이 호법(護法)의 주석을 중심으로 다른 논사들의 주장을 모아 10권으로 한역한 것이 바로 〈성유식론〉이다. 이를 규기가 주석한 것이 〈술기〉이다.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에 진학해 유식학을 전공한 이 씨는 1992년 박사과정에 입학하면서부터 〈성유식론〉과 〈술기〉 번역에 매달려 왔다. 1995년 박사과정을 수료한 다음부터는 하루 15시간 이상을 번역에 쏟아 부었다.

이 씨가 박사 논문 쓰는 것까지 접고 이 두 책의 번역에 매달린 것은 '불교 교학의 정점'이라고 일컬어지는 〈성유식론〉이나

최대한 원문 번역 충실
주석달아 술어 설명
하루 15시간 10년 작업

〈술기〉에 대한 변변한 번역서 하나 없는 우리 불교학계의 현실 때문이다. "유식학에 대한 연구 논문은 해마다 꾸준히 나오고 있고, 전공자들 역시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본에서 번역한 것을 다시 번역한 2차 자료를 쓰거나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의 번역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을 위한 충실한 1차 자료 확보'가 목표이다 보니 최대한 원문 번역에 충실했다. 당대 논사들의 논쟁이 그대로 녹아 있는 개념적 술어를 섣불리 현대 용어로 풀다 보면 당시의 철학적 배경과 교리에 대한 해석을 이해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신 주석을 달아 개념적 술어를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다. 〈고려대장경〉과 일본의 〈대정신수대장경〉의 페이지 수도 주로 달아 원문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게 했다.

책을 출간할 출판사를 물색하고 있는 이 씨는 "이번 번역이 완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연구자들이 계속 보완 · 수정해 나갔으면 합니다"고 말했다.

학술담당=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종교와 과학' 워크숍 "과학 통해 불교 더 선명하게"

국내외 종교학자와 과학자들이 모여 종교와 과학간의 대화를 모색하는 '종교와 과학 워크숍'이 19~21일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 특히 기대를 모은 것은 21일 열린 '자연과학과 동양종교' 주제의 워크숍. 아직도 '불교와 과학은 상관이 없다'는 인식이 자연과학자들 사이에 팽배한 가운데, 과연 과학적 관점에서 불교의 기본 사상을 설명할 수 있는가가 관심사였다.

'과학의 토대 위에서 본 불교철학의 핵심 이해'를 발표한 양형진 교수(고려대 물리학과)는 "고래와 인간이 달라 보이지만 같은 포유류인 것처럼, 자연과학과 불교가 겉모습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같은 근원을 공유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물리학에서 말하는 분자 구조의 특성을 예로 들며 "우리가 아무리 물방울을 분석한다 해도 거기서 무지개의 본성을 발견할 수는 없다"며 "물방울은 변하지 않는 무지개의 자성(自性)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요소가 무지개로 나타날 수 있게끔 조성됨으로써, 즉 모든 인연이 어우러짐으로써 무지개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무지개라는 관념과 무지개라는 명칭이 생겨난다"고 연기의 개념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의에서 진월 스님(동국대 선학과 강사) 역시 "과학을 통해 불교를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동대향로 日 못간다"

문화재위, '한국의 명보전' 전시 불허

문화재위원회 2분과(동산문화재)는 21일 국립중앙박물관이 한 · 일 월드컵 공동 개최를 기념해 일본 도쿄국립박물관(6월11일~7월28일)과 오사카 시립역사미술관(3월16일~5월6일)에서 여는 '한국의 명보(名寶)전'에 출품될 국보 287호 백제금동대향로에 대해 해외 반출 불허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위원회는 백제금동대향로가 다른 유물보다도 예술적 가치가 월등히 크고 국내 학술적 연구 성과가 부족한 상황에서 함부로 해외 전시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측이 강한 유감과 함께 후속 대책을 요구해옴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보 287호 백제금동대향로.

'중앙亞 벽화' 사진 공개

중앙박물관 소장 1700점 보존처리중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유물 가운데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유물 일부를 사진으로 공개했다.

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유물은 일명 '오타니 콜렉션'이라 불리는 1700여 점. 이 중 지난해 12월 보존 처리 작업을 거친 중앙아시아 벽화 유물(사진)과 채색 마형 토기 등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서기 8~9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벽화는 중앙아시아 투르판에서 수집된 불상 벽화로 가로 19㎝ 세로 29㎝ 크기다.

이들 중앙아시아 유물들은 보존처리 등을 거쳐 2005년 개관 예정인 용산박물관 중앙아시아실에 전시된다.

◇중앙아시아 투르판에서 수집된 불상 벽화.

高僧 다시보기

나옹혜근 스님

나옹혜근(懶翁慧勤, 1320~1376) 스님은 태고보우 · 백운경한 스님과 더불어 고려말 삼화상(三和尙)으로 불리지만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다.

스님은 1320년 충숙왕 7 경남 영덕에서 아버지 선관서령 아서구와 어머니 정씨 사이에서 태어나 20세에 공덕산 묘적암에 출가한 후 회암사에서 정진하여 깨달음을 얻었다. 1347년 원나라 유학을 떠나 10년 동안 머물렀다. 스님은 보우 스님의 스승인 석옥 청공스님의 도반인 평산처림(平山處林) 스님에게 법을 인가받았으나 다시 인도승 지공선현(指空禪師) 스님에게 법을 인가받고 그의 상수제자가 되었다.

지공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작은아버지의 자손으로 인도불교의 중심이었던 날란다사 출신이다. 북인도, 서역, 중국을 거쳐 고려에 와 2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려 민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기도 했다.

◇신륵사 나옹화상 진영.

원나라 황제의 부름을 받고 돌아간 지공 스님은 고려여인이 마련해 준 법원사(法源寺)에 머물면서 혜근 스님을 상수제자로 삼았다. 또한 무학 자초스님과 그의 도반인 축원 지천스님 등도 법원사에서 지공 스님과 혜근 스님에게 법을 인가받았다. 이렇게 해서 지공, 혜근, 자초로 이어지는 삼화상의 인연이 맺어지기에 이른다.

보우 · 경한 스님과 더불어 '삼화상'

회암사 중창…불교 흥성에 앞장

자초 스님보다 2년 후인 1358년에 귀국한 혜근 스님은 지공 스님이 전해 준 삼산양수(三山兩水)라는 수기를 가지고 와서 불교를 흥성시키고자 하였으나 당시 신돈과 진각국사 천희스님이 주도한 화엄종승들 때문에 그 뜻을 펴지 못하였다. 마침 1370년(공민왕 19) 지공 스님의 영골이 개경에 온 것을 계기로 혜근 스님과 보우 스님이 왕사와 국사로 책봉되었고 혜근 스님은 천태종의 신조 스님, 화엄종의 천희 스님, 조계종의 환암 스님 등 교계의 대표가 참여한, 당시 불교계를 망라하여 공부선(功夫選)을 주관하여 불교계를 일신하고자 하였다.

또한 스님은 지공 스님이 지정한 홍법의 땅인 회암사를 중창하였다. 1차 낙성시 사부대중이 구름같이 몰려들었고 이를 우려한 정부는 스님을 밀양 영원사로 가라는 명을 내렸다. 가는 도중 여주 신륵사에서 1376년 입적하였다.

스님의 이러한 홍법(弘法)의 뜻은 그의 상수제자인 무학 자초스님에게 계승되고 조선 태조 때 양주 회암사에 지공, 혜근, 자초 세 스님의 부도와 진영이 모셔짐으로써 삼화상으로서의 위상이 제고되었다. 자초 스님의 제자인 진산 스님, 함허당 기화 스님 등은 조선초 불교계를 주도하게 된다.

■황인규/동국대 강사

마하몰 – 설날맞이 상품전

/ 구매하시는(10만원 미만) 모든 분께 다포 또는 기도포 증정
/ 10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께는 '연꽃입치마' 증정
/ 행사 기간중 33분을 추첨하여 푸짐한 상품 증정
추첨1) '열반의 미소 천년을 가다' CD-10명
추첨2) 연꽃입치마-10명
추첨3) 대나무 잔-10명
추첨4) 옥(玉)액자-3명
※3만원 이하 구매시 운송료 2000원 별도

오분향
상단을 우아함으로 이어 가는, 음정, 이기 파장을 32음의 음에 담은 전연대에서 상개를 이용하여 개발한 제품입니다.
수량 : 200개입
판매가 : 30,000원

오분향(목욕용)
적은 적부분에 고명하는 분, 음에 익히기 않아도 분을 위하여 인공향기를 배제하고 전연약제의 향약인을 이용하여 개발하므로 부작용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용량 : 100 g(약 20회분)
판매가 : 20,000원

생기향
자양을 우경분으로 이어 관광, 전조, 당귀, 감초등 32음의 음에 담은 전연대에서 양개를 이용하여 개발한 제품입니다.
수량 : 200개입
판매가 : 30,000원

현상소원향
현상 수련법은 연소기 전명대전의 개 위해 부처님의 영상과 함께 귀의해 염원하는 분구가 나타나는 발명제품입니다.
재료 : 향, 자단향, 오리향, 목향, 박단향
종류 : 무병장수, 학업성취, 사업번창, 환경극복, 심자소원
판매가 : 각 35,000원

현상 공덕향세트
조이후, 보름 개일 및 어려기에의 원명가 되에 사용하는 공덕향입니다.
구 성 : 관세음보살 석가모니불, 지장보살
규 격 : 3Cm(지름) × 18Cm(길이)
중 량 : 170g
정상가 : 15,000원
할인가 : 13,500원

보원향 선물세트
어려기에 향을 오동나무 상자에 정성을 다해 포장하여 드리는 분의 마음을 우리의 당 앞입니다.
구성 : 보원향+연복침향+한방향 + 향꽂이
판매가 : 60,000원

백침향 선물세트
어려기에 향을 오동나무 상자에 정성을 다해 포장하여 드리는 분의 마음을 우리의 당 앞입니다.
구성 : 백침향+신자단+천연목향 +향꽂이
판매가 : 50,000원

불교 명상 음악 시리즈
● 총 명상음악 1, 2
판매가 : 각 10,000원
● 산사의 명상음악 1, 2, 3, 4
판매가 : 각 10,000원
● 불교명상음악 1, 2
판매가 : 각 10,000원

옥(玉) 개인용 다기
구 성 : 찻잔(2p), 찻잔받침(2p), 거름기(2p)
판매가 : 70,000원

옥(玉) 다기세트
구 성 : 다관, 숙우, 찻잔(6p), 찻잔받침(6p)
판매가 : 330,000원

나비문 5인다기 / 판매가 : 90,000원
백상감청실문 세트 / 판매가 : 00,000원
동자담초 세트 / 판매가 : 42,000원
불사귀불 세트 / 판매가 : 84,000원
불사국정 세트 / 판매가 : 84,000원

영인스님 염불 시리즈
CD 30장(1 예불연주 경 - 30 전통염주대 다라니(6)로 구성(1 30장의 CD를 패키지 상품으로 구성하여 15% 할인된 가격으로 드립니다.
정상가 : 300,000
판매가 : 255,000원
※ 낱장으로 구입시 CD 1장당 10,000원 입니다.

상수스님 염불 시리즈
CD 30장(1 예불연주 경 - 30 전통염주대 다라니(6)로 구성(1 30장의 CD를 패키지 상품으로 구성하여 15% 할인된 가격으로 드립니다.
정상가 : 200,000
판매가 : 170,000원
※ 낱장으로 구입시 CD 1장당 10,000원 입니다.

행사기간 : 2002년 1월 30일 ~ 2월 28일 까지
● 지면에 광고된 상품과 더 많은 상품을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 불교문화상품 문의 전화 : 02)732-1520
무통장 입금계좌 : 국민은행(006-01-0785-361) 현대불교신문사